



광주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사진은 올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지원사업 '일몰제' 검토

광주문화재단 설문조사 뒤 25일 공청회

“독점 막는다” vs “예술계 타격”

광주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몰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특정 단체·개인에 예산 지원이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단이 지원을 많이 받은 단체·개인의 예산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일몰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지원 독점 막는다=문화재단은 오는 23일까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몰제'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설문조사는 올 예산을 지원받은 167명과 신청은 했지만 예산을 받지 못한 833명,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단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할지, 부분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소액 다건형' '집중지원형' 등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소액다건형 지원사업은 최소 200만원, 최대 2000만원의 예산을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집

일부 단체·개인 집중에 젊은 예술인 등 불만 커

열악한 지역 환경 감안 일몰적 지원 중단 안돼

중지원형 지원사업은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소수의 예술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개인에 예산 지원이 집중되면서 신생 문화단체나 젊은 예술인의 불만이 커다.

실제, 올 현재 집중지원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는 6개였고 3년 연속 지원단체 7개, 4년 연속 지원단체도 7개에 달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집중지원사업 21건 중 33%가량이 4년 연속 지원을 받은 셈이다. 또 소액다건 사업도 2년 연속 5건, 3년 연속 13건, 4년 연속 18건으로 다소 편중됐다.

◇'초가삼간 태운다' 우려도=문화재단의 일몰제를 바라보는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특정 단체와 개인의 예산 독점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지역 대표 문화 상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집중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문화 환경이 열악해 일몰적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면 예술 활동에 타격을 입는 예술가나 예술 분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일몰제의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소액다건형 지원사업만 시행 ▲소액다건형·집중지원형 공동 시행 ▲집중지원형 지원사업만 시행 등을 논의 중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이며 공청회를 통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계에서는 집중지원형 지원사업에 무작정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많다. 논란이 많은 소액다건형에 부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집중지원형에 대한 일몰제는 가장 지원 기간 지정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지원의 경우 지역 대표 문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소액다건형의 경우에도 2~3년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개인에 한 해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탄력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뷰 광주시립극단 '나의 살던 고향은'

오늘 하루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는 주인공 영희에게 모든 건 소중한다. 짜깁기라는 시계도, 장미꽃도,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까지도. 살면서는 그 진가를 몰랐던 것들이다. 객석에 앉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15일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 정기공연 연작 '나의 살던 고향은'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따뜻한 작품이었다. 탄생과 결혼, 죽음으로 이어지는 영희와 철수네,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삶에 감정이 입면 관객들 역시 다른 작품에 비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의 유명 희곡을 무대에 올릴 때 고민하게 되는 게 있다.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프리처상 수상작으로 1938년 초연 이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매일 공연이 올려진다는 유명 작품 '우리읍내'(Our town)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연출을 맡은 강남진(백제예술대 교수)씨가 직접 각색해 미국 뉴햄프셔 한 마을을 1970년대 송정리로 변환시킨 구도는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최씨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송정리 떡갈비, 선동렬 선수, 임방울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더 친숙할 테니까. 다만, 3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송정리의 삶과 전체 스토리가 매끄럽게 녹아들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감정이 고조되는 건 죽음을 다룬 3막이었다. 몇개의 의자와 조명만으로 만들어진 단촐한 무대세트는 강한 인상을 줬다. 딱 하루 다시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날, '행복했던 날' 대신 '평범했던 날'을



이웃들 소소한 일상에 관객들 편하게 몰입 20대 배우 '발견'·객석과 대화 재미 더해 어색한 대사·일부 산만한 연출은 아쉬워

택한 영희가 가족들을 만나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 던지는 의미있는 대사들의 경우 어색한 톤으로 표현되면서 극의 몰입을 방해해 아쉽다.

그밖에 다소 밋밋해질 수 있는 작품에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객석과 대화를 시도하는 무대감독 역할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연극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역량있는 신진 배우의 등장이 반가웠다. 송정주·이현기·정경아·윤미란 등 지역 공연 배우들이 무게 중심을 잡는 가운데 영희 역

의 최유정과 철수 역의 김강철 두 젊은 20대 배우는 '발견'이었다.

또 작품이 시작하기 전, 관객들이 객석에 들어설 때부터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재즈 밴드는 막간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마지막에 흐르는 '봄날은 간다'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다.

반면 배우들이 객석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너무 잦아 산만한 느낌을 줬고, '웃음'을 의식한 듯한 몇몇 장면들을 정리해 좀 더 압축시켰으면 극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을 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의 40년 '젊은 문학 선언'

사회 병폐 비판·자성 목소리 담아... '40년사' 발간도

"한국 사회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물음에 봉착해 있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가 올해로 40년이라는 장년에 이르렀다. 창립 40돌을 맞아 17일 발표한 '젊은 문학 선언'에서 한국작가회의는 "작가로서 우리는, 문학이 지금-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자기반성을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1974년 11월 18일에 결성됐던 자유실천문학협회가 모태가 됐다. 결성 당일 발표한 '문학인 101인선언'에는 대표 간사였던 고은 시인을 비롯 신경림, 염무웅, 황석영, 박태순 등 다수의 문인들이 참여했다. '문학인 101 선언'이 발표된 지 40년 만



소통에 대해 불감증을 앓고 있다. 소통은 공허한 점유율이 되어 우리들의 전화기 속 거주지라면 남아 있다"며 문학을 상실된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40년 역사를 기록한 '한국작가회의의 40년사'와 증언록 '증언 : 1970년대 문학운동'을 출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 콘텐츠 선정 방안

26일 예술극장 토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극장이 진행하는 '예술극장 토크-광주 예술계와 함께하는 예술극장' 4번째 행사가 오는 26일 오후 4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의 주제는 '광주 콘텐츠 선정 방안'이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지금까지 '광주 예술가 프로그램', '광주 예술계에 묻다', '광주 젊은 예술가 지원' 등 3차례 토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3차례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다.

문의 062-410-35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식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